승리 부르는 '행운의 투수'

KIA 유승철, 동점 등 위기 상황 등판
잇따른 역전승으로 시즌 3승
"승리도 좋지만 선발승 지켜주고 싶어"

유승철

'예비역' 유승철이 KIA 타이거즈의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투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철은 지난 19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1-3으로 뒤진 6회말 2사 1·2루에서 시즌 6번째 출격에 나섰다.

유승철이 6회 위기를 넘겨준 뒤 7회도 깔끔하게 처리해주자 KIA 타선이 7회말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8, 9회 장현식과 정해영이 출격해 6-3 승리를 합작했고, 유승철의 3승이 기록됐다.

유승철은 한화와 홈경기가 열린 지난 5일 2-2로 맞선 1사 만루에서 전역 후 첫 경기에 나섰다. 긴장감 가득한 상황에서 유승철은 희생플라이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추가 실점 없이 위기를 처리했고, 8회도 잘 마무리해줬다.

KIA는 이날 8회말 나온 류지혁의 역전 결승타로 개막 3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KIA 첫 승 주인공은 유승철이었다.

유승철은 7일 한화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출격해 두 번째 승리를 챙겼다. 19일에도 분위기 싸움을 이끌며 3승 투수가 됐다.

유승철은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 띠이고 KBO리그 40주년, 타이거즈 40주년인데 등번호가 40번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선발 후보로 경쟁을 했던 시범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유승철의 활약은 개인은 물론 팀에도 반갑다.

유승철은 "시범경기 때 너무 안 좋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첫 경기 때 내가 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믿고 내보내주셨다. 믿음을 받는다는 생각에 잘 던지고 싶었다"며 "서재응 코치님께서 내 직구가 '한화 타자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다'면서 직구만 던지라고 하셨다. 직구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있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동료들도 한마음으로 유승철의 자신감을 키워줬다.

유승철은 "첫 등판하고 내려왔는데 '승철이 승 한번 만들어 주자'는 분위기였다. 두 번째 승 할 때도 이범호 코치님이 '승 또 만들어주자'면서 선배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잘되는 것 같다. 선배님, 코치님들이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3승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에 1군에 있을 때와 차이가 있다. 그때는 자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즌은 기니까 한 경기로 다음 경기에 지장 가지 않게 하자고 하고 있다. 원래 뻔뻔하지 않은 사람인데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웃었다.

무엇보다 잘 나가는 유승철의 가장 큰 무기는 리그에서도 손꼽는 직구다.

유승철은 "데이터 팀에서도 (직구 구위가)상위권이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포수 형들도 한가운데 던져도 된다고 해서 스크라이크존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타자들이 직구 의식하니까 변화구 같은 것에도 잘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철은 자신의 승보다는 팀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시즌을 보낼 생각이다.

유승철은 "내가 승리해서 좋은 게 아니라 팀이 이기면 좋다. 필승조를 아껴도 되는 타이밍에 내 역할 충실하면 팀입장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득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승리하면 좋지만 선발 투수 형들이 승리하면 좋겠다. 나는 승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팀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역전승 발판 '무모한 질주'

KIA 루키 김도영, 두산과의 홈 경기
폭투 나오자 2루 지나 3루까지 뛰어
간발의 차이 세이프 … "죽었다 살았다"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7회말 무사 1루에서 1번 류지혁 타석 때 1루주자 김도영이 폭투를 틈타 3루까지 뛰고 있다. /연합뉴스

뛴 사람도 지켜본 사람도 "무모했다"며 웃음을 터트린 '깜짝 질주'였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천적' 두산 베어스와 시즌 첫 대결을 벌였다. 이날 7회 '슈퍼루키' 김도영에게 시선이 쏠렸다.

2-3으로 뒤진 7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김도영은 홍건희의 초구를 공략해 좌전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폭투가 나온 사이 2루를 지나 3루까지 내달렸다.

포수 박세혁이 공의 위치를 놓치고 헤매자 3루수 허경민이 KIA의 덕아웃 앞까지 달려가 공을 잡았고, 베이스 커버에 들어온 유격수 안재석에게 송구했다.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김도영의 세이프였다.

김도영의 발로 두산을 흔든 KIA는 류지혁의 우전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1사 만루에서 나온 황대인의 역전 적시타로 6-3 승리를 거뒀다.

김도영은 지난 주말 NC와의 경기에서 5개의 안타를 챙겨왔다. 이 중 2개가 내야안타였다. 특히 17일에는 상대 유격수 노진혁을 당황하게 만든 '김도영표 내야 안타'도 만들었다.

노진혁이 깔끔하게 공을 잡아 빠르게 송구로 연결했지만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한 김도영이 더 빨랐다.

마음과 다른 타격에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발휘하지 못했던 김도영은 타격이 풀리면서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주루도 주말 활약이 발판이 된 자신감이었다. 물론 김도영 스스로도 인정한 '무리한 플레이'이기는 했다.

김도영은 "포수가 공을 못 찾고 있으니까 3루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뛰는 도중에 '죽었다' 싶어서 빨리 뛰었는데 살았다. 정확히 송구가 왔으면 죽었다. 보통은 2루까지만 안전하게 하는데 무리한 플레이기는 했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김종국 감독도 20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무모는 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김 감독은 "더 정확한 송구였으면 아웃이었다. 천운이 김도영에게 흘렀다"며 "노아웃 상황이었다(웃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중간에 돌아가도 되지 않았나. 물론 포수인 박세혁 선수가 공 위치 파악하지 못한 것 보고 뛴 것은 좋았다.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났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주루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시즌 초반과 달리 결과가 잘 나오면서 또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김도영의 뛰는 야구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김도영은 "적응하니까 하나씩 내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NC전 안타 나오기 전에 (이)의리 형, (정)해영이 형이랑 사우나 하면서 팀에만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내야 땅볼 치고도 전력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신기하다"며 "(19일 경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사인 나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함마드 살라(리버풀)가 20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022 EPL 30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4번째 골을 넣은 후 특유의 기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버풀 EPL 선두 도약 '쿼드러플' 도전

리그컵·리그·챔스·FA컵 우승권
맨유에 4-0 대승…살라 22호 골

'이집트 왕자' 무함마드 살라의 발끝이 살아난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격파하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선두로 올라섰다.

리버풀은 20일(한국시간) 홈인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022 EPL 30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살라의 멀티 골과 루이스 디아스, 사디오 마네의 득점포를 엮어 맨유를 4-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리그 13경기 무패(11승 2무)를 달린 리버풀은 승점 76(23승 7무 2패)으로 맨체스터 시티(승점 74·23승 5무 3패)를 끌어 내리고 1위로 도약했다.

더불어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했다.

반면 '4강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맨유는 순위를 올리지 못하고 6위(승점 54·15승 9무 9패)에 자리했다.

최근 EPL 3경기에서 득점이 없던 살라는 이날 자신의 리그 21호 골과 22호 골을 몰아쳐 득점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득점 2위 손흥민(토트넘·17골)이 뒤를 쫓는 가운데, 격차는 5골로 벌어졌다.

또 살라는 이날 디아스의 결승골을 도우면서 리그 12호 도움을 기록해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리버풀)와 도움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살라는 득점과 도움을 더한 공격포인트에서도 압도적 리그 1위(34개)로, 손흥민(23개)이 2위다.

리버풀은 전반 5분 만에 결승골을 뽑아냈다.

마네가 뒤에서 넘겨준 공을 살라가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로 연결했고, 디아스가 정면으로 쇄도하며 오른발로 차 넣었다.

살라는 전반 22분에는 마네의 원터치 패스를 왼발 슛으로 마무리해 직접 추가 골을 완성했다.

2-0으로 우위를 점한 리버풀은 후반에도 기세를 늦추지 않았다.

후반 23분 마네가 한 골을 추가했고, 40분에는 디오구 조타가 찔러준 패스를 받은 살라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로 쐐기골을 터트렸다.

지난해 10월 맨유와 9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해 리버풀의 5-0 완승을 이끌었던 살라는 EPL에서 단일 시즌 맨유를 상대로 5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인 '킹 오브 더 매치'(King of the Match)에도 선정됐다.

올 시즌 13차례 킹 오브 더 매치에 오른 살라는 이 부문에도 역시 손흥민(11회)에 앞서 1위다.

한편 출산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유)는 이날 결장했는데, 안필드를 찾은 관중들은 한마음으로 위로를 건넸다.

리버풀과 맨유 팬들은 호날두의 등번호 7번에 맞춰 전반 7분 박수를 보냈고, 리버풀 팬들은 구단 응원가인 '유 윌 네버 워크 얼론(You will never walk alone)'를 부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엄지성 K리그2 11R 베스트 11

안양 원정에서 멋진 중거리 슛을 선보인 광주FC의 엄지성(사진)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엄지성이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K리그2 11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엄지성은 지난 1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27분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을 선보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광주는 전반 34분 나온 김현훈의 자책골로 다시 리드를 내줬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터진 헤이스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5경기 연속 무패에 성공했지만 아쉽게 5연승을 이루지 못하면서 부천FC에 이어 승점 1점 차 2위가 됐다.

한편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와 안양의 경기는 11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베스트팀은 대전하나시티즌이 됐다. 대전은 충남아산FC와의 원정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선제골을 기록한 대전 임은수는 무실점 승리까지 견인하면서 11라운드 MVP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